

# 엄마 젖이 최고! ②

<편집실>

**그** 러나 그런 내 욕심과 아이의 바램과는 달리 백일이 지나 낮에 젖을 먹이지 않자 유즙 —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젖이 적어 할 수 없이 우유와 모유와 이유식을 병행해서 먹일 수밖에 없었다.

욕심 같아선 6개월까지 먹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서서히 젖양은 줄어들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서 보행기를 타게 되었을 때 완전히 우유와 이유식으로 대체해버렸다.

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마저 들었다. 남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당연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먹일 수 있는 한 끝까지 먹인 나의 아이에 대한 사랑에 남편도 흡족해 하는 눈치였다.

사실 우리 남편이 더 극성이다. 나보다 아이의 건강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해한 적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 지금은 고맙기까지 하다.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매일 지켜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워하며 나름대로 육아일기를 편지형식으로 쓸 만큼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그래서 더욱 엄마한테서라도 부족한 사랑을 더 받게끔 하기 위해 모유수유에 깊은 애착을 가진 것 같다.

요즘은 남편이 아내의 몸매관리를 위해서 모유수유를 못하게 하고 또 아내 스스로 젖먹이는 일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난 뭐든 자연스러운걸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섭리로 받아들여 아이 젖을 낳으면서 수술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다.

여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겪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유수유도 마찬가지다. 조금의 번거로움 때문에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주 쉽게 포기를 하는 것 같다.

유방암이라든가 모든 질병들이 자연스러움을 거부해서 생기는게 많다고 한다.

난 여름에 아이를 낳아 몸조리도 못했다. 하지만 별 후유증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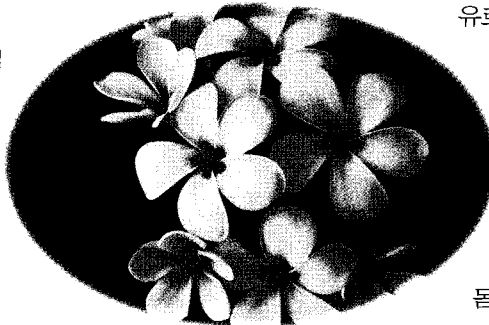
거기에는 모유수유가 한 몫을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한다.

그리고 모유를 먹이는 동안에는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출산 후의 자궁수축이 잘되기 때문에 몸의 빠른 회복과 체중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인지 난 아이를 젖 낳았지만 별 몸매 변화가 없어 아직도 미혼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이후 둘째 아기를 낳았다. 딸이라 그런지 위의 오빠만큼은 힘들지 않았다.

첫애를 경험 삼아 자연스럽게 모유수유를 시작했고 아이도 잔병없이 자랐다.



사람들의 표현대로 엄마 젖의 좋은 점은 보관이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신선함을 줄뿐 아니라 값싸고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데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각종면역 기능뿐 아니라 소화흡수가 잘 되고 신생아뿐 아니라 두세 살이 될 때까지 질병을 예방해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준다.

요즘엔 특히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것이 우유성분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의 주원인인 베타락토글로블린 때문이라는데 모유엔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또 IQ, EQ가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보다 높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외면하고 우유를 먹이는 것은 사회현상의 하나인 것 같다.

요즘은 외국에서도 자연분만과 엄마 젖 먹이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우리 나라보다 훨씬 많은 엄마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가장 자연스러움을 거부하며 좋은 여건에서 훌륭하게 엄마 젖을 먹이며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데도 애써 소젖으로 아이를 키우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개성이 뚜렷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어른들이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렇다고 푸념처럼 말씀하시곤 하셨다.

사실 셋째 아이는 모유가 맞질 않는지 겨우 초유만 먹을 뿐이었다.

젖만 먹으면 설사를 하고 엉덩이가 짓물러 신생아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게 안타까워 분유로 키웠다.

그래서인지 셋째는 유일하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 감기에 자주 걸리곤 한다.

요즘 아이들은 엄마 젖에 대한 향수가 예전만큼은 아닌 듯 하다.

우리들이 어릴 적엔 세 살이 되어서도 젖을 먹기도 하고 만지며 거의 애정표현의 하나로 엄마 젖



을 선택했던 것 같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지지만 그걸 만지며 부끄러워하거나 신기한 물건 보듯이 하는

게 참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만큼 엄마젖의 기능이 생소하고 어색한 게 아닐까?

우리 엄마들부터 차안에서나 길거리 집은 물론이고 그 어느 곳에서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젖의 기능이나 엄마의 가슴에 대한 추억을 어렵곳이나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난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젖 먹이는걸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엄마의 권리로 생각하며 그 권리를 충분히 찾아서 누려야 하지 않을까?

이 땅의 모든 미혼 여성들이 자신의 미모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듯이 엄마들의 아름다움은 모든 시기에 맞게 제 역할을 충분히 하며 애써 자연스러움을 거부해가며 꾸미는 아름다움 보다 나이에 맞게 늙어감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엄마 젖을 먹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가꾸어 가는 세상은 분명 밝고 건강하며 희망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리라 여겨진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여!

진정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선택은 하나, 바로 엄마 젖을 먹이며 우리의 아이를 진정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본란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엄마젖이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수기 부문 새하늘상에 입상한 김계향씨의 작품입니다.